

北 인프라 시장 열리나... 건설업계 '두근두근'

남북 경협 재개 대비 대한건설협 내달 포럼 SOC 참여 모색

남화토크인 수혜주...완도 홍익산업 등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건설업계 등 경제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다양한 경제협력(경협)이 재개되면서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진행될 경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감에 대비할 움직임도 감지된다. 다만, 경협이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절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대북 제재 해제 등 선결할 주요 안보·외교 현안이 남아 있는 만큼 선봉은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2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다음달 8일 '건설통일포럼'(가칭) 첫 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건설업계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통일포럼은 지난 2014년 구성됐다가 대북제재조치 이후 유명무실했던 '건설분야

통일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남북 경협에 관심있는 모든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날 북한 지역개발 청사진을 공개하는 한편, 인프라·플랜트·국토개발 분과로 나눠 경협 사업의 구체적 참여 계획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도 남북 경협에 관심 있는 지역 건설사들에게 안내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협사업은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연결 등이 진행됐고 2007년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 경제협력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당시 거론됐던 사업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공동 이용과 남포 조선협력사업

단지 건설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많았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점 때문에 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되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가 모처럼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 경협 관련 건설사로 꼽히는 남화토크인 최상준 대표이사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협사업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협 사업이 진행될 지 모르지만 사회간접자본 분야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에서조차 경협 활성화를 동북아 전체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급등하는 모양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도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등 남북 경협 사업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개성공단에 입주해 북

한 근로자 400여명을 고용, 연간 1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렸던 완도의 해조류 가공업체 ㈜홍익산업도 그 중 하나다.

홍익산업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고용화로 인해 겪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해조류 가공은 기계보다 사람의 손길을 타는 수작업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세탁기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에 쓰이는 전기배선 부품을 생산했던 담양의 부천공업(주) 역시 정상회담을 반기는 분위기다.

개성은 수도권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적고 인건비도 저렴한데다, 언어까지 통해 인력을 다루기 훨씬 수월했다.

부천공업 관계자는 "현지에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설비기기를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75.64 (+26.83) ↓ 금리 (국고채 3년) 2.23% (-0.01)
- ↑ 코스닥 879.39 (+9.46) ↑ 환율 (USD) 1080.90원 (+0.30)

이디야커피 호남사무소 확장 이전

광주 무등산점 오픈 2500호점 돌파...17년만에 최다 가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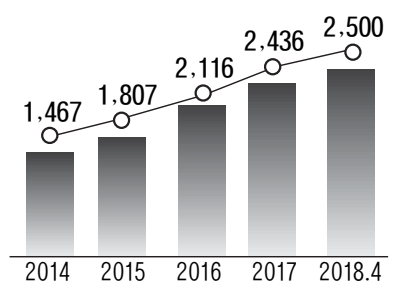
이디야커피(대표이사 문창기)는 27일 호남지역 출점을 강화하기 위해 호남사무소를 확장 이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문창기 회장을 비롯, 임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확장된 호남사무소에는 지역가맹점주 교육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교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디야커피 측은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균일한 제품·서비스 제공과 호남지역 가맹점의 지속적인 음료·서비스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인력으로 지속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당일 국내 커피전문점 중 처음으로 2500호점(광주 무등산점)도 새롭게 문을 연다. 국내 최다 가맹점 오픈 성과가 지역 거점을 통한 출점과 가맹점 관리의 결실이라는 게 이디야커피 측의 설명이다. 이디야커피는 국내 최다 가맹점 오픈 성과를 지역 거점을 통한 출점과 가맹점 관리의 결실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영남사무소를 개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지역 거점 개발에 노력, 당시 33개에 불과했던 매장이 사무소 개

■이디야커피 가맹점 오픈 실적



설 이후 400개를 넘었으며, 2016년에는 호남사무소 개설한 뒤 지역에서 20%이 상 높은 매장 출점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디야커피는 지난 2016년 8월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2000호점을 돌파한 이후 2018년 현재 500호점을 신규 출점해 2500호점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1년 3월 첫 매장인 중앙대점 오픈 이후 17년 만에 전국 방방곡곡에 가맹점 시대를 열게 됐다는 뜻으로, 전국 매장에서 하루 평균 60만잔의 제품이 팔리는 등 '국민 커피전문점'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은 26일 본사에서 LG전자, 에너너코리아 등 30개 기업과 함께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 윤장현 광주시장,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김석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박성철 한전KDN 사장. <한전 제공>

한전,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유치 300곳 돌파

LG전자·에너너코리아 등 30곳과 협약...512개 일자리 창출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나주시 에너지밸리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가 300개를 돌파했다.

한전은 26일 나주 본사에서 LG전자와 에너너코리아 등 30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에너지밸리에 총 839억원을 투자해 512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12월 본사를 나주로 이전한 한전은 나주 지역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발전

시키기 위해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지금까지 총 310개사와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했다. 이로 인한 누적 투자금액 1조2678억원이며 814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한전은 올해 3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했으나 이를 350개로 상향하고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30개 기업 중 20개는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저장장치

(ESS) 등 에너지산업 분야 기업이다.

한전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4개의 ICT 및 농생명 기관들과 에너지중심의 융복합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동시에 체결했다.

김종갑 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거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협력사

경영정상화 결의대회

협력업체협 창립총회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도 회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협력업체들은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아름다운컨벤션에서 '회사 경영정상화 동참 결의대회 및 협력업체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경영 정상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

업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최고의 품질로 기술·인력·자재를 공급, 최고의 고 품질 타이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품질경영에 앞장설 것과 ▲정당한 가격 경쟁을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협력업체 협의회는 또 금호타이어 애용 캠페인을 펼치는 등 금호타이어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국세청 향토업체 지원방안 모색

이은향 청장, 고흥 유자가공·광양 매실업체 방문 애로 청취

이은향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역 고 유문화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향토지정업체 방문을 통해 자금심 고취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25일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나래식품을 찾아 어려움을 청취했으며 지난 1월 고흥 지역 유자가공

업체, 3월 광양 흥쌍리 매실家를 방문해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이 청장은 자산공원 일대에서 여수세무서장을 비롯한 세무서 직원들이 함께하는 세정홍보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 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편안한착용감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탄성GOOD! 흡습성GOOD!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일본 도레이社 LYCRA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발단면역강화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